

‘연륜’의 주승용이나... ‘패기’의 김성식이나

국민의당 오늘 원내대표 경선...조기 대선 영향력 주목

호남 vs 안철수와 대결 양상...1~2표차 초반빙 판세

국민의당이 29일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주승용 의원과 김성식의 의원이 초반빙 판세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당내 안철수 세력과 호남 세력 간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내부 권력 구도의 변화는 물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정 등 당의 방향을 잡아갈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반적인 판세는 1~2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초반빙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당일 투표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가며 자신의 강점을

독표로 연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4선 호남 출신의 주 의원은 연륜과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원내대표의 연륜과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리닝메이트’ 격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같은 호남 출신 4선의 조배숙 의원이자.

주 의원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반(反) 패권주의 연대를 통해 정권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적 존재감이 크게 약화되면서 대선 구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의 친박(親朴)과 더불어민

주당의 친문(親文)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모으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은 호남 중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립적 성향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의 김 의원은 당에 필요한 혁신을 이뤄낼 책임자임을 자임하면서 전국 정당화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정책위의장 후보인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을 통해 호남과의 조화도 노리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의 개혁 조화를 통해 지역적 프레임에 걸려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당의 정권 창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 지도부를 평평과 조화의 ‘드림팀’으로 꾸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막판 당내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친안(친 안철수) 진영의 비례

대표 의원들과 일부 호남 초선들의 지지를 통해 승리를 일궈낸다는 방침이다.

새로 뽑힌 원내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4당 체제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원내를 이끌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김영환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은 10%대 초반 지지율에 정체해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내년 15일은 독선 지도부에 대한 탄핵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당은 새로운 노선과 역동적인 새 얼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당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희정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온 안희정 “대권 향해 묵묵히 가겠다”

“文 새 진보가치 못내놔” 견제 시정서 특강...순천 등도 방문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에서 대선 표밭 같이 나온 안희정 충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보 가치를 숙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내 경선 경쟁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견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전 대표가 진보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폭넓게 포용한다면 제가 이길 길이 없지만, 문 전 대표는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서 “누가 대선과정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될지는 가늠이 없다”면서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지율은 크게 개의치 않으며, 에베레스트 최정상에도 도전할 마지막 주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한 시대의 지도자를 뽑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묵묵히 가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방식에 대한 답변에서도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어떤 방식이든 받겠다”고 밝힌 안

지사는 “우리 모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모든 카드를 쏟아내야만 정당당한 경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 후보들이 기다려달라면서 기다려야 하고 장갑 좀 끼고 하자면 그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 1등하고 있는 문 대표가 정당당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권 일부에서 거론하는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그 대안으로 야권 공조를 주장했다.

안 지사는 “최근 호남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거론되는 제3지대 정계개편론은 김영삼의 ‘3당 연합’과 무엇이 다르냐”며 반대를 표시했다.

전날 순천대 강연에서 했던 “문재인 밍파고 정계개편 시도하는 것은 호남의 길이 아니다”는 발언을 광주에서도 이어갔다.

안 지사는 “친노·비노, 친문·비노를 얘기하는 것은 일부 잘못된 정치인의 행동으로 이같은 분열적 정치에 반대한다”며 “호남 민심은 김대중·노무현 통합의 정신이며 민주화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

민주 非文 초선 ‘리셋 2017’ 출범

야 대선주자들 개혁 의지 검증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14명이 28일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야권 대선주자들의 개혁 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임 ‘리셋 2017’을 발족과 함께 창립 세미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현재 대선 후보 중심의 협소한 틀로는 기득권 집착과 과감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파적 우월리를 떠나 대선승리를 위한 개혁과제 선정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新) 4당 체제 출현은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절호의 기회만큼 재벌·검찰·방송개혁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개혁입법과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거창적 체제의 구축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 인사들은 강훈식, 기동민, 김병기,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박용진, 박재호, 송기현, 어기구, 위성근, 이철희, 이훈, 조웅천 의원 등이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그룹도 포함돼 있지만 비문(비문재인)계 또는 비주류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친문그룹 등 당내 주류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셋 2017은 앞으로 다른 정치세력과의 ‘입법 연대’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검찰·방송 등 개혁입법들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어제의 동지 오늘은?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누다 관계 직원에게 귀띔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보수신당 “한·일 위안부 합의, 추가 협상해야”

새누리당과 상반된 견해...2야는 “당장 폐기하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모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28일 1주년을 맞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나서며 친정인 집권여당과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지부진하던 양국 간 협상을 타결시키고, 현실적 권리구제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 인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첫 번째 현안논평을 통해 “한일 위안부 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상처 치유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와 진정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추가 협의는 당사자의 납득과 수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야당들도 “굴욕적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역할함을 들어주고 이해를

대변해야 할 정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베 신조 정권의 폭주각시에 불과했다”며 “정부는 굴욕적인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기만적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불가역적 최종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잊혀진 소녀의 꿈’이자 잊혀진 안 될 역사’로 개인과 가족의 탓으로 돌려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원·유승민 ‘백봉신사상 대상’

국회 출입 기자단 선정...정세균 12번째 수상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가 선정한 제18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봉신사상은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신사적인 정치인을 키우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제정됐다.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김종인·이상호·전혜숙·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안철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베스트 10에 선정돼 모



박지원 유승민

두 12차례 신사상을 받은 현역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30일 국회 출입기자 35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병원	상가 주택	골프연습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서구 금호동 / 2층 / 대지 57평 건물 65평 / 안집 32평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크린 12층 / 중마초등학교 서측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9천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	
		상가	감정가 16억, 최저가 16억
		서구 치평동 (상부지구 세제아울렛) / 4층 중 1층 / 건물 35평 / 코너 / 주차장	
		모텔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수익형 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모텔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암리 / 전 1513평 / 1층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주성**